

호모 심비우스

- 인간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근본적으로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상가들이 답해왔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개체단위의 관점이 아니라, 유전자 단위에 관점에서 보자면, 유전자는 생존본능에 따라 자신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생존기계가 필요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관점이다.
- 적을 만나면 복어가 몸을 부풀리거나,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는 것 또한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 동작하는 매커니즘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 행동은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이타성의 표본인 개미와, 벌 집단을 보자. 고도로 분업화된 곤충들은 자신의 번식 기회를 포기하고 여왕이 홀로 알을 낳도록 돕는다. 이런 동물을 진사회성 동물이라고 한다. 진화는 어떻게해서 이처럼 생식을 포기하고 죽도록 일만 하는 불임 계급을 만들었을까?
- 개미가 작은 군락을 이뤄 살았을 때에는 그다지 높은 진사회성을 띠지 않는다. 그러나 군락이 커지면 오히려 여왕에게 모든 번식을 맡기고 일만 하는 것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인간은 어떠한가?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기계라는 말과는 달리, 사회 곳곳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위들을 관찰할 수 있고, 인간의 정신은 사회성과, 협동성, 신뢰성을 지향하고 있다. 유전자 관점에서는 이기적일 수 있으나, 인간의 정신은 이타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이 있다.

일반적인 예 [편집]

상황은 다음과 같다. 두 명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어 서로 다른 취조실에서 격리되어 심문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자백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택이 가능하다.

- 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려주고 나머지 한 명이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 둘 모두 서로를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둘 모두 5년을 복역한다.
- 둘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둘 모두 6개월을 복역한다.

구 분	죄수 B의 침묵	죄수 B의 자백
죄수 A의 침묵	죄수 A, B 각자 6개월씩 복역	죄수 A 10년 복역, 죄수 B 석방
죄수 A의 자백	죄수 A 석방, 죄수 B 10년 복역	죄수 A, B 각자 5년씩 복역

균형 [편집]

- **죄수A의 선택** : 죄수B가 침묵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죄수B가 자백할 것으로 되는 경우 자백이 유리하다. 따라서 죄수A는 죄수B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백을 선택한다.
- **죄수B의 선택** : 죄수A와 동일한 상황이므로, 마찬가지로 죄수A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백이 유리하다.
- **균형** : 죄수 A, B 는 모두 자백을 선택하고 각각 5년씩 복역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두 죄수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이기적 결과에서 이타적 결과로 옮겨진다. 내가 다른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해주는 것이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상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 어떤 리더가 실험적 근거없이 남을 사랑하라고 주장한다면, 청중은 주장에 동의하더라도, 한번 손해를 보면 다음부터는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에 실험과 근거가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넘어, 실천해야만 이타적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 공동체의 멤버십이 조만간 깨지겠구나를 생각한다면, 두려워지고 관계는 와해된다. 다른 사람들도 너 만큼 남을 생각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 니가 겪는 고통이나 니가 겪는 손해가 그렇게 크게 아닐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그러한 관점을 길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당장 몇개월의 성과로 아웅다웅 할게 아니라고 보여주게 하는 것.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대사회를 이루어 왔다.
- 20만년전부터 존재해왔던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른점은 바로 인지능력이다. 지금과 같은 의학 지식이 없었던 시절, 버섯을 먹고 갑작스럽게 죽는 동료나,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기형아, 가뭄이나 홍수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미스터리한 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연을 통제하는 존재, 즉, “신”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혈연으로만 맺어졌던 사피엔스들의 소규모 공동체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수 많은 사피엔스를 한데 묶는, 유례없는 대규모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된다.
- 이렇게 만들어진 신은 인간사회에 개입하였고, 이타적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의지적으로 이타적 사회를 건설 할 수 없으니, 밖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정에 따랐는지 모른다. 그리고 좋든 싫든 지금의 역사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